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1년, 옵시디언이 바꾼 교실 이야기

Junki

2024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1년, 옵시디언이 바꾼 교실 이야기

기

저자의 말

목차

제1부. 패턴을 읽는 교사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하루, 옵시디언이 바꾼 1년

목차

프롤로그: 3월의 혼돈

1부. 화장실빌런의 비밀

패턴의 발견

기록이 바꾼 질문

작은 변화, 큰 성장

2부. 공격적인 아이의 진짜 이유

또 다른 패턴

맥락을 찾아서

달라진 상담

3부. 조용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그래프 뷰의 고립된 점

의식적 관찰의 시작

보이지 않던 리더십

4부. 기록이 나를 지켜준 날

민원 전화

3단계 팩트 전환

기록은 방패다

에필로그: 12월의 기적

기록이 바꾼 것들

마지막 한 마디

부록: 읍시디언 기록법 요약

1. 데일리 노트 (매일 3분)

2. 링크 걸기 (핵심 습관)

3. 백링크로 패턴 찾기

4. 민원 대응 3단계

제2부. 신호를 읽는 교사

기록이 만든 기적 2편

교실의 숨겨진 신호들

목차

프롤로그: 보이지 않는 것들

5부. 월요병의 진짜 이름

매주 반복되는 패턴

주말이 두려운 아이

안전한 월요일 만들기

6부. 급식을 남기는 이유

편식이 아니었다

냄새가 불러온 기억

작은 배려, 큰 변화

7부. 5교시의 폭풍

점심 후 돌변하는 아이

혈당과 감정의 연결고리

간식 한 조각의 기적

8부. 비 오는 날의 지각생

날씨와 출석의 상관관계

우산 없는 아이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에필로그: 신호를 읽는 교사

신호 해독 체크리스트

마지막 한 마디

제3부. 기록으로 지키는 교사

기록이 만든 기적 3편

교사의 방패, 기록의 힘

목차

프롤로그: 그날의 전화

9부. 학교폭력 조사, 기록이 증언하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3개월 전 기록이 말해준 것

진실은 기록 속에

10부. “체벌했다면서요?”

악몽 같은 민원

그날의 수업 기록

오해가 풀리는 순간

11부. 평가 이의제기

“왜 우리 애만 B예요?”

피드백 기록의 힘

공정함을 증명하다

12부. 인수인계의 기술

2월의 선물

1년을 5분에 담다

다음 담임에게 전하는 것

에필로그: 기록은 방패이자 유산이다

교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마지막 한 마디

제4부. 경력을 쌓는 교사

기록이 만든 기적 4편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

목차

프롤로그: 3년 차의 깨달음

13부. 피타고라스 정리, 3년간의 진화

첫 해의 참패

기록이 바꾼 두 번째 해

3년 차, 완성된 수업

14부. 체육대회의 아이스크림

매년 반복되는 실수

“내년의 나에게” 편지

드디어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15부. 학부모 상담 주간의 비밀 무기

30명 상담, 30시간 준비?

1년 기록이 만든 5분 준비

학부모가 놀란 순간

16부. 수학여행 전날의 기적

전날 밤의 악몽

3년 치 체크리스트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

에필로그: 경력이 쌓이는 교사

나만의 백과사전 구축하기

마지막 한 마디

부록

부록 1. 옵시디언 기록법 요약

부록 2. 교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부록 3. 나만의 백과사전 구축하기

부록 4. 신호 해독 체크리스트

기록이 만든 기적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1년**, 옵시디언이 바꾼 교실
이야기

Junki 지음

기억을 잊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저자의 말

교직 7년.

나는 두 종류의 교사를 봤습니다.

한 종류는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교사.
10년 차가 되어도 “작년에 뭘 했더라?” 하
며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사.

다른 한 종류는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교사.
3년 차에 이미 “이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확신을 가진 교사.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

이 책은 제가 기록을 통해 경험한 작은 기적
들의 모음입니다.

화장실만 가던 아이가 영어 불안을 극복한
이야기. 공격적이던 아이가 “성격 고치고
싶어요”라고 말한 이야기. 조용하던 아이에
게서 숨겨진 리더십을 발견한 이야기. 기록
이 민원으로부터 나를 지켜준 이야기. 3년
간의 실수가 완벽한 체크리스트가 된 이야
기.

모두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경험은 경력이 아닙니다.

이 책이 당신의 첫 번째 기록을 시작하는 계
기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부. 패턴을 읽는 교사

- 프롤로그: 3월의 혼돈
- 1장. 화장실빌런의 비밀
- 2장. 공격적인 아이의 진짜 이유
- 3장. 조용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 4장. 기록이 나를 지켜준 날
- 에필로그: 12월의 기적

제2부. 신호를 읽는 교사

- 프롤로그: 보이지 않는 것들
- 5장. 월요병의 진짜 이름
- 6장. 급식을 남기는 이유
- 7장. 5교시의 폭풍
- 8장. 비 오는 날의 지각생
- 에필로그: 신호를 읽는 교사

제3부. 기록으로 지키는 교사

- 프롤로그: 그날의 전화
- 9장. 학교폭력 조사, 기록이 증언하다
- 10장. “체벌했다면서요?”
- 11장. 평가 이의제기
- 12장. 인수인계의 기술
- 에필로그: 기록은 방패이자 유산이다

제4부. 경력을 쌓는 교사

- 프롤로그: 3년 차의 깨달음
- 13장. 피타고라스 정리, 3년간의 진화
- 14장. 체육대회의 아이스크림
- 15장. 학부모 상담 주간의 비밀 무기
- 16장. 수학여행 전날의 기적
- 에필로그: 경력이 쌓이는 교사

부록

- 옵시디언 기록법 요약
 - 교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나만의 백과사전 구축하기
-

제1부. 패턴을 읽는 교사

"기억에 의존하는 교사는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기록을 소유한 교사는 매년 조금씩 성장한다."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하루, 옵시디언이 바꾼 1년

Junki 지음

기억을 잊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목차

- **프롤로그: 3월의 혼돈**
- **1부. 화장실빌런의 비밀**
 - 패턴의 발견
 - 기록이 바꾼 질문
 - 작은 변화, 큰 성장
- **2부. 공격적인 아이의 진짜 이유**
 - 또 다른 패턴
 - 맥락을 찾아서

- 달라진 상담

- **3부. 조용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 그래프 뷰의 고립된 점
- 의식적 관찰의 시작
- 보이지 않던 리더십

- **4부. 기록이 나를 지켜준 날**

- 민원 전화
 - 3단계 팩트 전환
 - 기록은 방패다
- 에필로그: **12월의 기적**
 - 부록: 옵시디언 기록법 요약

"기억에 의존하는 교사는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기록을 소유한 교사는 매년 조금씩 성장한다."

프롤로그: 3월의 혼돈

3월 14일 목요일, 점심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이었다.

“선생님! 도현이랑 승민이가 싸워요!”

복도로 뛰어나갔다. 두 아이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겨우 말리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점심을 한 숟가락도 못 먹은 상태였다.

그날 저녁, 나는 옵시디언을 열고 이렇게 적었다.

점심시간:  [[강도현]]과 [[류승민]] 복도에서 다툼. 어깨 부딪힘 시비.

그때는 몰랐다. 이 한 줄이 6개월 뒤, 한 아이의 인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줄은.

1부. 화장실빌런의 비밀

패턴의 발견

김민준이는 우리 반의 '화장실빌런'이었다.

수업만 시작하면 손을 번쩍 듈다.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처음엔 웃어넘겼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상했다. 매주 같은 시간에만 배가 아프다.

3월 7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김민준]] 수업 시작 5분 만에 화장실 간다고 나감. 15분 소요.

3월 14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김민준]] 또 화장실. 수업 시작
5분 만에. 저번 주랑 똑같다.

3월 21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김민준]] 배 아프다며 보건실
감.

옵시디언에서 [[김민준]]을 클릭했다. 백링크에 3주간의 기록이 쪽 나열되어 있었다.
그제야 보였다.

날짜	요일	교시	과목
3/7	목	2교시	영어
3/14	목	2교시	영어
3/21	목	2교시	영어

매주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에만 배가 아프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었다. 회피였다.

기록이 바꾼 질문

기록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민준아, 왜 자꾸 화장실 가니? 수업 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기록이 있었기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다.

"민준아, 혹시 영어 시간이 힘드니?"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처음으로 '읽힌다'는 표정이었다.

"선생님... 듣기평가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 져요."

영어 듣기평가에 대한 불안. 학원에서도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 "어차피 전 못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던 아이. 화장실은 도피처였던 것이다.

작은 변화, 큰 성장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다. 듣기 스크립트를 미리 주는 것.

"민준아, 오늘 듣기평가에 이 내용 나올 거야. 미리 한 번 읽어봐."

5월 9일, 민준이가 쉬는 시간에 달려왔다.

"선생님, 오늘 안 무서웠어요!"

11월, 기말고사 후.

"쌤, 저 듣기 75점 나왔어요! 제
최고 기록이에요!"

감으로 때리는 훈계가 아니라, 데이터로 설
득하는 상담. 그 차이는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2부. 공격적인 아이의 진짜 이유

또 다른 패턴

강도현이는 '문제아'였다. 적어도 3월의 나에게는 그랬다.

- 3월 7일, 체육 시간 축구 중 과격한 플레이.
- 3월 14일, 점심시간 복도에서 류승민과 다툼.
- 4월 2일, 체육 시간 옥설.

[[강도현]] 백링크를 열 때마다 빨간 깃발이 펄럭였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사건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직후에
발생했다.

- 축구 중 부딪힘 → 과격한 반응
- 북도에서 어깨빵 → 다툼
- 체육 시간 태클 → 욕설

맥락을 찾아서

3월 20일, 도현이를 조용히 불렀다.

"도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엔 경계했다. 흔날 줄 알았나 보다. 그런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다.

"선생님... 저희 집에서 아빠가 자주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현이는 '공격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방어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습관이 생긴 아이였다. 가정에서 큰 소리에 시달리다 보니, 갑작스러운 접촉이나 큰 소리에 과잉 반응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옵시디언에 이렇게 적었다.

[[강도현]] - 가정환경 파악 - 부모님 갈등, 아버지의 큰 소리 - 갑작스러운 접촉 시 방어적 반응 -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 선제 공격" 패턴 - 접근법: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어?" 식으로

달라진 상담

다음에 도현이가 친구와 다퉁을 때, 나는 다르게 말했다.

맥락을 모를 때:

"도현아, 왜 자꾸 친구들이랑 싸우니? 다음부터 참아."

맥락을 알 때:

"도현아, 승민이가 어깨 부딪혔을 때 화가 많이 났구나. 혹시 그 순간, 집에서 느끼는 것처럼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도현이가 처음으로 울었다. "선생님이 저를 아시네요."

5월 15일, 스승의 날. 도현이가 편지를 건넸다.

"쌤, 사실 저도 제 성격 고치고 싶어요."

그 한 줄이 1년 중 가장 값진 문장이었다.

3부. 조용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그래프 뷰의 고립된 점

9월 어느 날, 옵시디언의 그래프 뷰를 열었다. 학생들의 이름이 점으로 표시되고, 기록이 많을수록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김민준 - 화장실빌런, 영어회피, 자기 효능감...
- 강도현 - 교우관계, 가정환경, 분노조절...

그런데 구석에 아무 선도 연결되지 않은 점 하나가 있었다.

정수아.

1학기 동안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아이.
조용하고 성실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에, 내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문제아는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모범생은
잊혀진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의식적 관찰의 시작

9월 12일, 쉬는 시간에 수아에게 다가갔다.

“수아야,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처음엔 당황했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말을
걸지? 하는 표정. 그런데 천천히 입을 열었
다.

“선생님, 저 웹툰 좋아해요. 〈재혼황후〉
요.”

의외로 말이 많은 아이였다. 그냥 기회가 없
었을 뿐.

그날부터 나는 수아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

- 9월 12일: 쉬는 시간 대화. 웹툰 좋아함. 의외로 말 많음.
- 9월 18일: 발표 시간, 친구들 경청하도록 분위기 잡아줌.
- 9월 25일: 학급회의 진행, 수학여행 조 편성 갈등 중재.
- 10월 15일: 점심시간 급식 질서 유지에 솔선수범.
- 11월 5일: 모둠활동 조장 역할, 전원 참여 유도.

보이지 않던 리더십

수아는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리더였다.

학급회의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 조 편성으로 싸울 때, 수아가 조용히 정리했다. “우리 일단 각자 희망 조 적고, 겹치는 사람끼리 얘기해보자.” 회의가 10분 만에 끝났다.

모둠활동에서 무임승차하는 아이가 있을 때, 수아가 역할을 나눠줬다. “너는 이거, 너는 저거.” 모두가 참여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12월** 생기부는 이랬을 것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임."

기록이 있었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다:

"2학기 학급 반장으로서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함.
학급회의 진행 시 갈등 상황을 조

정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모둠 활동에서 조장으로서 전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책임감이 돋보임.”

4부. 기록이 나를 지켜준 날

민원 전화

6월 15일, 퇴근 직전에 전화가 왔다.

“선생님,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준이가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대요.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면서
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
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다 보내줬
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으로 들린다.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 시작된다.

3단계 팩트 전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1단계: 감정 수용

"아버님, 민준이가 많이 속상했나 봐요."

2단계: 확인 요청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 기록을 확인해 봄도 될까요?"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옵시디언을 열었다.
Ctrl+Shift+F, 검색창에 '김민준'.

3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이 쭉 나왔다.

3단계: 팩트 제시

"기록을 보니, 3월 21일 수행평가 중에 시험 끝나고 가도록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보내 드렸고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사실 민준이가 매주 목요일 영어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서 상담했더니, 듣기평가가 힘들었더라고요. 지금은 스크립트를 미리 주고 있고, 5월부터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런 거였군요. 민준이가 왜
곡해서 말한 것 같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기록은 방패다

11월, 정수아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선생님도 우리 수아한테 관심 없
으시죠? 조용한 애들은 다 그렇잖
아요."

나는 옵시디언을 열었다.

"어머니, 9월부터 기록을 말씀드
릴게요. 9월 18일 발표 시간에 친
구들 경청 분위기 조성, 9월 25일

학급회의 갈등 조정, 10월 15일
급식 질서 유지 솔선수범, 11월 5
일 모둠활동 조장 역할...”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봐주셨군
요. 감사합니다.”

기억은 왜곡되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
다.

민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에는
방패가 있었으니까.

에필로그: 12월의 기적

12월, 생활기록부 마감 시즌.

예전의 나는 이맘때 머리를 쥐어뜯었다. “1번 강도현... 뭐 썼더라?” 결국 “성실하고 책 임감이 강하며...”라는 복불 문장을 적었다.

올해는 달랐다.

검색창에 ‘강도현’ 입력. 1초.

3월의 다툼, 가정환경 파악, 4월의 상담, 5월의 편지, 9월의 변화...

1년간의 여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초반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함. 체육 활동 시 심

판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책임감을 보였으며, 후배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성장이 돋보임.”

5분. 진심이 담긴 생기부 한 문단을 쓰는 데 걸린 시간.

기록이 바꾼 것들

학생	3월의 나	12월의 나
김민준	“화장실빌런”	“영어 불안을 극복한 아이”
강도현	“문제아”	“방어기제를 이해받은 아이”
정수아	“조용한 애”	“영향력 있는 리더”

달라진 건 아이들이 아니었다. 나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꿔준 건, 매일 3분씩 적은 한 줄의 기록이었다.

마지막 한 마디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마세요. 엉망으로라도 일단 쓰세요."

그 한 줄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됩니다.

기록하지 않은 경험은 경력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첫 번째 점을 찍어보세요.

부록: 옵시디언 기록법 요약

1. 데일리 노트 (매일 3분)

매일 자동으로 생성되는 오늘 날짜의 기록
장입니다.

기본 양식:

2026-03-14 (목)

오늘 한 줄

- [[김민준]] 또 학장실. 목요일 2교시 패턴?
- [[강도현]] 점심시간 다툼. 개별 면담 필요.

ORID 회고

- 사실: 무슨 일이 있었나?
- 감정: 어떤 기분이 들었나?
- 해석: 왜 그랬을까?
- 계획: 그래서 어떻게 할까?

2. 링크 걸기 (핵심 습관)

대괄호 두 개로 감싸면 링크가 됩니다.

- 학생 이름: [[김민준]], [[강도현]]
- 행동 키워드: [[화장실빌런]], [[교우관계]]
- 환경 키워드: [[월요병]], [[비오는날]]

3. 백링크로 패턴 찾기

[[김민준]] 클릭 → 모든 관련 기록이 한 곳에 모임

→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만 화장실” 패턴 발견

4. 민원 대응 3단계

1. 감정 수용: “많이 걱정되셨겠습니다.”
 2. 확인 요청: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3. 팩트 제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지도 했습니다.”
-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하루, 옵시디언이 바꾼 1년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

문의: junki@example.com

제2부. 신호를 읽는 교사

기록이 만든 기적 2편

교실의 숨겨진 신호들

Junki 지음

기억을 잊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읍시
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목차

- **프롤로그:** 보이지 않는 것들
- **5부.** 월요병의 진짜 이름
 - 매주 반복되는 패턴
 - 주말이 두려운 아이
 - 안전한 월요일 만들기
- **6부.** 급식을 남기는 이유
 - 편식이 아니었다
 - 냄새가 불러온 기억

- 작은 배려, 큰 변화

- **7부. 5교시의 폭풍**

- 점심 후 돌변하는 아이
- 혈당과 감정의 연결고리
- 간식 한 조각의 기적

- **8부. 비 오는 날의 지각생**

- 날씨와 출석의 상관관계
- 우산 없는 아이
-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 **에필로그: 신호를 읽는 교사**

"문제 행동은 아이가 보내는 SOS 신호다. 기록은 그 신호를 해독하는 암호표다."

프롤로그: 보이지 않는 것들

1년 차 때, 나는 '보이는 것'만 봤다.

지각하는 아이. 떠드는 아이. 싸우는 아이.

5년 차가 된 지금,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한다.

왜 지각하는지. 왜 떠드는지. 왜 싸우는지.

그 '왜'를 찾는 도구가 기록이다.

이번 이야기는 내가 놓칠 뻔한 신호들에 관
한 것이다. 월요일마다 힘들어하는 아이,
급식을 남기는 아이, 점심 후에 돌변하는 아
이, 비 오는 날만 지각하는 아이.

그들이 보낸 신호를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
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5부. 월요병의 진짜 이름

매주 반복되는 패턴

박서준이는 월요일만 되면 다른 사람이 됐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밝고 활발한 아이. 그런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책상에 엎드려 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수가 줄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다.

처음엔 그냥 '월요병'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월요일은 힘드니까.

3월 4일, 월요일.

[[박서준]] 1교시 내내 엎드려 있음. "괜찮아?" 물으니 "네" 한마다.

3월 11일, 월요일.

[[박서준]] 또 엎드려 있음. 눈 충혈. 점심도 거의 안 먹음.

3월 18일, 월요일.

[[박서준]] 오늘도. 3주 연속. 월요일만 이러네.

3주간의 기록을 보니 패턴이 명확했다.

요일	상태
월	무기력, 눈 충혈, 식욕 저하
화~금	정상, 활발, 친구들과 잘 어울림

월요일만 문제다. 이건 단순한 월요병이 아니었다.

주말이 두려운 아이

3월 19일, 화요일. 서준이가 좀 나아 보일 때 조용히 불렀다.

“서준아, 요즘 주말에 뭐 해?”

표정이 굳었다.

“...집에 있어요.”

“재미있어?”

“...”

침묵이 길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주말마다 싸워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저는 방에서 이 어폰 끼고 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서준이의 '월요병'은 게으름이 아니었다. 주말 내내 부모님 싸움을 들으며 잠을 못 잔 피로였다. 눈 충혈은 수면 부족, 무기력함은 정서적 소진이었다.

나는 옵시디언에 적었다.

[[박서준]] - 가정환경 파악 - 주
말 부모 갈등, 금~일 지속 - 월요
일 무기력 = 수면 부족 + 정서 소
진 - 학교가 오히려 안전지대 - 접
근법: 월요일 아침 "잘 왔어" 한마
디

안전한 월요일 만들기

그 후로 나는 월요일 아침마다 서준이에게 먼저 다가갔다.

“서준아, 잘 왔어.”

처음엔 어색해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서준이가 먼저 눈을 마주쳤다.

4월 15일, 월요일.

[[박서준]] 오늘은 엎드려 있지 않음. “선생님, 잘 왔어요” 먼저 인사.

5월 어느 날, 서준이가 쪽지를 건넸다.

“선생님,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학교 오면 마음이 편해요.”

학교가 도피처가 아니라 안전지대가 되는
것.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6부. 급식을 남기는 이유

편식이 아니었다

이수빈이는 급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영양사 선생님이 걱정했다. “수빈이 편식이 너무 심해요. 고기 반찬은 아예 안 먹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요즘 아이들 편식 많으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니 이상했다.

4월 3일.

[[이수빈]] 급식 거의 안 먹음. 제
육볶음 나왔는데 밥만 조금.

4월 10일.

[[이수빈]] 오늘은 잘 먹음. 생선
까스, 샐러드.

4월 17일.

[[이수빈]] 또 안 먹음. 돼지불고
기.

4월 24일.

[[이수빈]] 잘 먹음. 치킨, 떡볶
이.

패턴을 정리했다.

날짜	메뉴	섭취
4/3	제육볶음	✖

날짜	메뉴	섭취
4/10	생선까스	○
4/17	돼지불고기	✗
4/24	치킨	○

돼지고기가 들어간 날만 안 먹는다.

종교적 이유? 아니면 다른 이유?

냄새가 불러온 기억

4월 25일, 수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빈아, 혹시 돼지고기 안 좋아해?”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다.

“왜? 맛이 싫어?”

“...냄새요.”

“냄새?”

수빈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냄새가...”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장례식장의 음식 냄새. 돼지고기 요리 냄새. 수빈이에게 그 냄새는 할머니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편식이 아니라 트라우마였다.

나는 옵시디언에 적었다.

[[이수빈]] - 급식 문제 - 돼지고기 냄새 = 장례식장 트라우마 - 작년 할머니 사망 - 편식 아님, 감각 트리거 - 접근법: 해당 메뉴 날대체 반찬 요청

작은 배려, 큰 변화

영양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수빈이가 돼지고기를 먹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해당 메뉴 날 대체 반찬 가능할까요?”

영양사 선생님이 흔쾌히 동의했다.

5월부터 수빈이는 돼지고기 메뉴 날 생선이나 두부 반찬을 받았다.

6월 어느 날, 수빈이가 말했다.

“선생님, 요즘 급식 시간이 안 무서워요.”

기록이 없었다면, 나는 수빈이를 '편식하는 아이'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냄새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7부. 5교시의 폭풍

점심 후 돌변하는 아이

정우진이는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달랐다.

1~4교시: 조용하고 집중 잘함. 5~6교시:
산만하고, 짜증 내고, 친구와 다툼.

처음엔 “점심 먹고 나른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정도가 심했다.

5월 8일, 5교시.

[[정우진]] 갑자기 옆 친구에게
“시끄러워!” 소리 지름. 친구는 아
무 말 안 했는데.

5월 15일, 5교시.

[[정우진]] 수업 중 책상 쾅쾅. "왜
그래?" 물으니 "몰라요!" 짜증.

5월 22일, 6교시.

[[정우진]] 모둠활동 중 "다 싫
어!"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감.

기록을 정리하니 패턴이 보였다.

시간대	상태
1~4교시	정상, 집중, 온순
점심시간	급식 빨리 먹고 운동장
5~6교시	짜증, 산만, 공격적

점심 후에만 문제다. 왜?

혈당과 감정의 연결고리

5월 23일, 우진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우진아, 점심 잘 먹어?”

“네, 빨리 먹어요. 축구하려고요.”

“얼마나 빨리?”

“5분이요. 밥 후루룩, 국 후루룩.”

“그리고 바로 운동장?”

“네! 종 칠 때까지 축구해요.”

그제야 이해됐다.

우진이는 점심을 5분 만에 먹고, 40분 동안 격렬하게 축구를 했다. 5교시가 시작될 때쯤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

저혈당 증상: 짜증,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어려움.

우진이의 '5교시 폭풍'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문제였다.

나는 올시디언에 적었다.

[[정우진]] - 5교시 문제 - 점심 5분 섭취 → 40분 격렬한 운동 → 혈당 급락 - 5교시 짜증/산만 = 저혈당 증상 - 성격 아님, 신체 반응
- 접근법: 5교시 전 간식 제공

간식 한 조각의 기적

보건 선생님과 상의했다. 저혈당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해요. 성장기 아이들, 특히 활동량 많은 남학생들은 점심 후 혈당 변동이 커요."

해결책은 간단했다.

5교시 시작 전, 우진이에게 에너지바 하나
를 줬다.

“우진아, 이거 먹고 수업하자.”

처음엔 의아해했다. “저만요?”

“응, 네가 필요해서.”

6월부터 우진이의 5교시가 달라졌다.

6월 5일, 5교시.

[[정우진]] 간식 후 수업. 오늘 짜
증 없음. 모둠활동 참여.

6월 12일, 5교시.

[[정우진]] 안정적. 친구에게 "미안, 내가 예전에 짜증 많이 냈지?" 사과.

기록이 없었다면, 나는 우진이를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로 낙인찍었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짜증 뒤에 숨겨진 배고픔을 읽을 수 있었다.

8부. 비 오는 날의 지각생

날씨와 출석의 상관관계

김하늘이는 지각이 잦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4월 한 달간 지각 기록을 보니 패턴이 있었다.

날짜	날씨	지각
4/2	맑음	✗
4/5	비	○
4/9	맑음	✗
4/12	비	○
4/16	맑음	✗
4/19	비	○
4/23	흐림	✗

날짜	날씨	지각
4/26	비	○

비 오는 날만 지각한다.

100% 상관관계.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우산 없는 아이

4월 27일, 하늘이에게 물었다.

“하늘아, 비 오는 날 왜 늦어?”

하늘이가 고개를 숙였다.

“...버스 타야 해서요.”

“평소엔 어떻게 와?”

“걸어요. 15분이요.”

“비 오면?”

“버스요. 근데 버스가 잘 안 와요.”

“우산 쓰고 걸으면 안 돼?”

“...”

침묵. 그리고 작은 목소리.

“선생님, 저 우산 없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늘이네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우산 하나 사는 게 부담이었던 것이다. 비 오는 날, 하늘이는 우산 없이 걸을 수도 없고, 버스비도 아까워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탔다.

지각이 아니라 가난이었다.

나는 옵시디언에 적었다.

[김하늘] - 비 오는 날 지각 - 우산 없음, 경제적 어려움 - 비 오면 버스 이용 → 배차 간격 길어 지각 - 게으름 아님, 환경 문제 - 접근법: 학교 비치 우산 제공, 담임 재량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개인적으로 우산을 사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 해결이었다.

나는 학교에 건의했다.

“현관에 공용 우산함을 만들면 어떨까요?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학생들이 빌려 쓰고,
다음에 반납하는 시스템으로요.”

행정실에서 동의했다. 5월부터 ‘나눔 우산 함’이 생겼다.

5월 10일, 비 오는 날.

[[김하늘]] 오늘 지각 안 함. 나눔
우산 사용.

6월 어느 날, 하늘이가 우산함에 우산을 넣고 있었다.

“하늘아, 그거 네 거야?”

“아니요, 제가 산 거예요. 저도 기부하려고요.”

기록이 없었다면, 나는 하늘이를 ‘지각 상습범’으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지각 뒤에 숨겨진 가난을 읽을 수 있었다.

에필로그: 신호를 읽는 교사

12월, 다시 생활기록부 시즌.

올해 내가 만난 아이들의 기록을 펼쳤다.

- 박서준: 월요병 → 주말 가정 갈등 → 학교가 안전지대
- 이수빈: 편식 → 장례식장 트라우마 → 작은 배려로 해결
- 정우진: 5교시 폭풍 → 저혈당 → 간식 하나로 변화
- 김하늘: 비 오는 날 지각 → 우산 없음 → 시스템으로 해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문제 행동'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SOS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월요일 무기력함은 “주말이 힘들어요”라는 신호. 급식 거부는 “이 냄새가 슬퍼요”라는 신호. 5교시 짜증은 “배고파요”라는 신호. 비 오는 날 지각은 “우산이 없어요”라는 신호.

기록은 그 신호를 해독하는 암호표다.

신호 해독 체크리스트

문제 행동	질문해볼 것	가능한 원인
특정 요일 무기력	그 전날/주말에 무슨 일?	가정 갈등, 수면 부족
특정 음식 거부	그 음식과 연결된 기억?	트라우마, 감각 과민
특정 시간 돌변	그 전에 뭘 했나?	혈당, 피로, 스트레스
특정 날씨 지각	등교 수단은?	경제적 어려움, 교통 문제

문제 행동	질문해볼 것	가능한 원인
특정 장소 회피	그 장소에서 무슨 일?	왕따, 트라우마, 불안
특정 교사 반항	그 교사와 무슨 일?	과거 갈등, 권위 트라우마

마지막 한 마디

"문제 행동을 보면 '왜?'라고 묻지 말고, '언제?'라고 물어라."

'왜 그래?'는 아이를 방어하게 만든다. '언제 그때?'는 패턴을 찾게 해준다.

그리고 패턴을 찾으면, 원인이 보인다. 원인이 보이면, 해결책이 보인다.

기록하지 않으면,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자.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기록이 만든 기적 2편

교실의 숨겨진 신호들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

제3부. 기록으로 지키는 교 사

기록이 만든 기적 3편

교사의 방패, 기록의 힘

Junki 지음

기억을 잊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읍시
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목차

- **프롤로그: 그날의 전화**
- **9부. 학교폭력 조사, 기록이 증언하다**
 - 갑자기 걸려온 전화
 - 3개월 전 기록이 말해준 것
 - 진실은 기록 속에
- **10부. “체벌했다면서요?”**
 - 악몽 같은 민원
 - 그날의 수업 기록

- 오해가 풀리는 순간

- **11부. 평가 이의제기**

- “왜 우리 애만 B예요?”
- 피드백 기록의 힘
- 공정함을 증명하다

- **12부. 인수인계의 기술**

- 2월의 선물
- 1년을 5분에 담다
- 다음 담임에게 전하는 것

- **에필로그: 기록은 방패이자 유산이다**

“기억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 한다. 기록만이 당신을 지켜준다.”

프롤로그: 그날의 전화

교직 7년 차, 나는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

한 번은 학교폭력 조사에서 “방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한 번은 “체벌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두 번 모두, 나를 지켜준 건 기록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기록이 어떻게 교사를 보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9부. 학교폭력 조사, 기록이 증언하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9월 15일, 오후 4시. 교무실 전화가 울렸다.

“선생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귀 반 학생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학생인가요?”

“피해 학생 최유나, 가해 학생 한지민. 6월
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유나. 한지민. 둘 다 내 반 학생이었다.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
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6월? 따돌림? 내가 몰
랐던 건가?

3개월 전 기록이 말해준 것

전화를 끊고 옵시디언을 열었다. 검색창에
‘최유나 한지민’.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6월 3일.

[[최유나]] 점심시간 혼자 밥 먹
음. [[한지민]] 그룹과 떨어져 앉
음. 관찰 필요.

6월 10일.

[[최유나]] 오늘도 혼자. [[한지민]]에게 "유나랑 왜 안 놀아?" 물으니 "걔가 싫대요" 답변. 개별 면담 예정.

6월 12일.

[[최유나]] 개별 면담. "지민이랑 사이 안 좋아?" 물으니 "괜찮아요" 답변. 표정 어두움. 추가 관찰.

6월 17일.

[[한지민]] 개별 면담. "유나랑 무슨 일 있어?" 물으니 "아무 일 없어요" 답변. 둘 다 부정.

6월 24일.

학부모 상담 주간. [[최유나]] 어
머니 상담. "유나가 요즘 학교 가
기 싫어해요" 말씀. 교우관계 문제
 가능성 언급. 지속 관찰 약속.

7월 5일.

[[최유나]] [[한지민]] 자리 배치
변경. 물리적 거리 확보. 유나 표
정 조금 밝아짐.

7월 15일.

1학기 종업식. [[최유나]] 어머니
께 전화. “2학기에도 계속 지켜보
겠습니다” 안내.

3개월간의 기록이 있었다. 나는 몰랐던 게
아니었다. 인지하고, 면담하고, 조치했다.

진실은 기록 속에

학폭위 조사관에게 기록을 제출했다.

“6월 3일부터 인지했고, 6월 12일과 17일
에 양측 면담, 6월 24일 학부모 상담, 7월
5일 자리 배치 변경까지 조치했습니다.”

조사관이 기록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조치하신 겁니
다.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이네요.”

나중에 알게 됐다. 최유나 어머니가 “담임이 방관했다”고 주장했지만, 내 기록과 6월 24일 상담 기록이 그 주장을 반박했다.

기억만으로는 “저는 분명히 조치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증거가 없다. 기록이 있었기에, “**6월 3일부터**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었다.

10부. “체벌했다면서요?”

악몽 같은 민원

10월 8일, 퇴근 직전. 교감 선생님이 부르셨다.

“선생님,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누구요?”

“송민재 학부모입니다. 어제 수업 중에 선생님이 민재 머리를 때렸다고요.”

송민재. 어제 수업. 머리를 때렸다?

절대 그런 적 없다. 하지만 “안 때렸습니다”라고 말해봤자 내 말뿐이다.

그날의 수업 기록

집에 와서 읍시디언을 열었다. 10월 7일 기록.

10월 7일 (월) 3교시 국어

- 시 낭독 수업. 모둠별 발표.
- [[송민재]] 발표 차례에 장난. "야, 진지하게 해" 주의.
- 민재 계속 웃음. 내가 다가가서 어깨 톡톡 치며 "민재야, 집중" 말함.
- 이후 발표 잘 마무리.

어깨를 톡톡 쳤다. 머리가 아니라 어깨.

그리고 그날 수업에는 30명의 학생이 있었다.

다음 날, 교감 선생님께 기록을 보여드렸다.

“제 기록에는 ‘어깨 톡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친 적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 날 수업에 있던 학생들에게 확인해 주세요.”

오해가 풀리는 순간

교감 선생님이 몇몇 학생에게 확인했다.

“그날 선생님이 민재 머리 쳤어?”

“아니요? 어깨 톡톡 치면서 ‘집중해’ 하셨어요.”

“머리는?”

“아니요, 절대 안 쳤어요.”

학부모에게 연락이 갔다.

“확인 결과,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체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 민재가 집에서 “선생님이 때렸어”라고 과장해서 말했고, 부모가 그대로 믿은 것이었다.

기록이 없었다면?

“안 때렸습니다” vs “때렸대요”의 진흙탕 싸움이 됐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수업 중 학생 지도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 “민재 주의” ○ “민재 어깨 톡
톡, ‘집중해’ 말함”

11부. 평가 이의제기

“왜 우리 애만 B예요?”

11월, 수행평가 성적 공개 후.

학부모 전화가 왔다.

“선생님, 왜 우리 지수만 B예요? 다른 애들은 다 A 받았다면서요?”

이지수. 발표 수행평가에서 B를 받은 학생.

“어머니, 지수가 발표 내용은 좋았는데, 평가 기준 중 ‘시간 준수’ 항목에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좋으면 됐지!”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다. 이럴 때 기억에 의존하면 “분명히 시간 초과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증거 있어요?”라는 반격을 받는다.

피드백 기록의 힘

나는 옵시디언을 열었다.

[[이지수]] 발표 수행평가 (11/5)

- 주제: 환경 보호
- 내용: A (논리적, 자료 풍부)
- 전달력: A (목소리 크기, 시선 처리 양호)
- 시간 준수: C (5분 기준, 7분 30초 소요. 2분 30초 초과)
- 종합: B
- 피드백: “지수야, 내용은 정말 좋았어. 다음엔 시간 조절만 신경 쓰면 A 받을 수 있어.”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다.

“어머니, 기록을 보니 지수는 내용 A, 전달력 A를 받았습니다. 다만 시간 준수에서 5분 기준에 7분 30초를 사용해서 C를 받았어요. 평가 기준표에 ‘2분 이상 초과 시 C’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시는군요.”

“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수에게도 발표 직후 ‘시간 조절하면 A 받을 수 있다’고 피드백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한테도 다음엔 시간 맞추라고 할게요.”

공정함을 증명하다

기록이 없었다면?

“시간 초과했어요” vs “우리 애만 깎은 거 아니에요?”의 싸움이 됐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 정확한 시간 (7분 30 초) - 적용된 기준 (2분 이상 초과 시 C) - 사전 피드백 (“시간 조절하면 A”)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수행평가 피드백을 반드시 기록하기 시작했다.

12부. 인수인계의 기술

2월의 선물

2월, 종업식이 끝나고.

다음 학년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다.

“선생님, 내년에 제가 이 반 맡게 됐는데...
혹시 인수인계 자료 있으세요?”

예전의 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음... 1번 강도현이는 좀 산만하고, 5번 김
민준이는 화장실 자주 가고, 12번 박서준이
는 월요일에 힘들어하고...”

기억에 의존한 두루뭉술한 정보.

1년을 5분에 담다

올해의 나는 달랐다.

옵시디언에서 각 학생의 노트를 열었다. 1년간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도현]] - 핵심 패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시 방어적 반응 - 배경: 가정 내 갈등 (아버지 큰 소리) - 접근법: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어?” 식으로 - 성장: 5월 이후 자기 성찰 시작, 11월 후배 배려 모습 - 주의: 체육 시간 신체 접촉 상황 모니터링

[[김민준]] - 핵심 패턴: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회피 (화장실) - 배경: 영어 듣기 평가 불안 - 접근법: 듣기 스크립트 미리 제공 - 성장: 5월 이후 회피 감소, 11월 듣기 75 점 달성 - 주의: 새 학년 영어 선생님께 상황 공유 필요

[[박서준]] - 핵심 패턴: 월요일 무기력 (눈 충혈, 식욕 저하) - 배경: 주말 부모 갈등, 수면 부족 - 접근법: 월요일 아침 “잘

왔어” 인사 - 성장: 4월 이후 월요일 안정화

- 주의: 학교가 안전지대. 월요일 특별 관심 필요

이 자료를 다음 담임 선생님께 전달했다.

다음 담임에게 전하는 것

다음 담임 선생님이 자료를 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자세한 인수인계는 처음 받아봐요.”

“1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3월에 선생님이 시행착오 없이 시작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다음 담임은 3월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도현이의 방어기제를 모르고 “왜 싸워?”라고 물을 것이다. 민준이의 영어 불안

을 모르고 “왜 화장실 가?”라고 물을 것이다. 서준이의 월요병을 모르고 “왜 힘들어?”라고 물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다음 담임은 **3월** 첫날부터 아이들을 이해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기록의 또 다른 가치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한 유산.

에필로그: 기록은 방패이자 유산이다

교직 7년.

나는 기록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배웠다.

첫째, 방패.

학폭위 조사에서 “방관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기록이 나를 지켜줬다. “체벌했다”는 민원을 받았을 때, 기록이 나를 지켜줬다.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항의를 받았을 때, 기록이 나를 지켜줬다.

기억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기록만이 당신을 지켜준다.

둘째, 유산.

2월에 다음 담임에게 인수인계할 때, 기록
이 아이들의 1년을 전해줬다. 다음 담임은
3월 첫날부터 아이들을 이해한 상태로 시작
할 수 있었다. 내가 쌓은 이해가 다음 사람
에게 이어졌다.

기록하지 않은 경험은 나와 함께 사라진다.
기록한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교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상황	기록해야 할 것
학생 지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했는지 (신체 접촉 여부 포함)
학부모 상담	날짜, 내용, 약속한 조치
학교폭력 인지	인지 날짜, 면담 내용, 조치 사항
수행평가	평가 기준, 점수, 피드백 내용

상황	기록해야 할 것
문제 행동	날짜, 상황, 지도 내용, 학생 반응
특이 사항	건강 문제, 가정 상황, 교우관계 변화

마지막 한 마디

"기록은 과거의 나를 지키고, 미래의 동료를 돋는다."

오늘 당신이 적은 한 줄이, 내일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되고, 내년 다른 교사에게 전해질 유산이 됩니다.

기록하지 않은 교사는 매년 처음부터 시작한다. 기록하는 교사는 매년 쌓아간다.

오늘도, 한 줄을 기록하세요.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기록이 만든 기적 3편

교사의 방패, 기록의 힘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

제4부. 경력을 쌓는 교사

기록이 만든 기적 4편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

Junki 지음

기억을 잊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읍시
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목차

- **프롤로그: 3년 차의 깨달음**
- **13부. 피타고拉斯 정리, 3년간의 진화**
 - 첫 해의 참패
 - 기록이 바꾼 두 번째 해
 - 3년 차, 완성된 수업
- **14부. 체육대회의 아이스크림**
 - 매년 반복되는 실수
 - “내년의 나에게” 편지

- 드디어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 **15부.** 학부모 상담 주간의 비밀 무기

- 30명 상담, 30시간 준비?
- 1년 기록이 만든 5분 준비
- 학부모가 놀란 순간

- **16부.** 수학여행 전날의 기적

- 전날 밤의 악몽
- 3년 치 체크리스트
-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

- **에필로그:** 경력이 쌓이는 교사

"기록하지 않은 교사는 매년 1년 차다. 기록하는 교사는 매년 경력이 쌓인다."

프롤로그: 3년 차의 깨달음

교직 1년 차, 나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체육대회. 학부모 상담. 수학여행.

2년 차, 나는 또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작년에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났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준비했다.

3년 차, 나는 깨달았다.

기록하지 않으면, 경력은 쌓이지 않는다.

10년 차 교사도 기록이 없으면 매년 1년 차처럼 시작한다. 3년 차 교사도 기록이 있으면 3년 치 경험 위에서 시작한다.

이번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사’에서 ‘매년 쌓아가는 교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13부. 피타고라스 정리, 3년 간의 진화

첫 해의 참패

2024년 5월, 중2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

나는 열심히 PPT를 만들었다. 공식 설명, 예제 풀이, 연습 문제. 완벽한 강의식 수업.

결과는 참담했다.

2024.05.12 -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 방식: *PPT* 강의 - 결과:
★★ (5점 만점) - 문제점: 10분
만에 애들 졸기 시작. "선생님, 이

거 왜 배워요?” 질문에 답 못함. -

반성: 공식만 가르치니까 재미없었음

그때는 그냥 “수업 망했다”로 끝났다. 기록은 했지만, 다음 해에 어떻게 바꿀지는 생각 못 했다.

기록이 바꾼 두 번째 해

2025년 5월,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작년 기록을 열었다. “PPT 강의 → 10분 만에 졸음 → ★★”

같은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바꿨다.

유튜브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활동’을 검색했다. ‘보물찾기 활동’이라는 게 있었다. 교실 곳곳에 좌표를 숨기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거리를 계산해서 보물을 찾는 활동.

2025.05.14 -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 방식: 보물찾기 활동 - 결과:
 - 좋았던 점: 애들
집중 잘함. "선생님, 다음 시간에
도 이거 해요!" 반응. - 아쉬운 점:
줄자가 부족해서 모둠별로 돌려
씀. 시간 지연. - 다음에: 줄자 모
둠 수만큼 준비할 것.

이번엔 달랐다. “다음에” 섹션을 추가했다.

3년 차, 완성된 수업

2026년 5월, 세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작년 기록을 열었다.

- 2024년: PPT 강의 →  (실패)
- 2025년: 보물찾기 →  (성공, 단 줄자 부족)

올해는 줄자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디지털 지도 앱으로 실제 학교 운동장 좌표를 활용하는 것.

2026.05.13 -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 방식: 보물찾기 + 디지털
지도 - 결과: ★★★★★★+ - 좋았
던 점: 실제 운동장 좌표 사용하니
"와, 진짜 수학이 쓰이네!" 반응. -
학생 피드백: "수학 시간 중 제일
재밌었어요."

3년간의 기록이 쌓였다.

2024년: 강의식 → ★★ (실패)



2025년: 보물찾기 → ★★★★★★ (성공)



2026년: 보물찾기 + 디지털 → ★★★★★★+ (완성)

기록이 없었다면?

2026년에도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가르치지?” 하며 처음부터 고민했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2년간의 시행착오 위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14부. 체육대회의 아이스크림

매년 반복되는 실수

체육대회. 교사에게는 전쟁 같은 날이다.

2024년 체육대회. 나는 반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오전 10시에 아이스크림을 받았다. 간식 시간은 오후 1시. 3시간 동안 아이스크림은 녹아내렸다.

“선생님, 이거 아이스크림이에요? 우유예요?”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년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2025년 체육대회.

또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또 오전에 밭았다. 또 녹았다.

“선생님,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제야 깨달았다.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기록해야 한다.

“내년의 나에게” 편지

2025년 체육대회가 끝난 그날 저녁, 나는 읍시디언을 열었다.

체육대회 매뉴얼

📆 2025년 기록

-
-

-

🎉 내년의 나에게

1.

2.

3.

“내년의 나에게” 섹션. 이게 핵심이었다.

행사 당일에 느낀 깨달음은 일주일만 지나면 잊혀진다. 그날 바로 적어야 한다.

드디어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2026년 체육대회 일주일 전.

나는 옵시디언에서 [[체육대회]] 노트를 열었다.

“내년의 나에게” 섹션이 눈에 들어왔다.

1. 아이스크림은 간식 시간 **30분**
전에 수령할 것!

“아, 맞다!”

올해는 달랐다. 아이스크림 업체에 전화해
서 오후 12시 30분 배송을 요청했다.

체육대회 당일. 오후 12시 30분에 아이스
크림이 도착했다. 오후 1시에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선생님,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이에요! 안
녹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을
먹인 순간이었다.

기록이 없었다면?

2026년에도 “아이스크림 몇 시에 받지?”
하며 또 오전에 받았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
기에, 2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15부. 학부모 상담 주간의 비밀 무기

30명 상담, 30시간 준비?

4월, 학부모 상담 주간.

30명의 학부모를 만나야 한다. 각 15분씩.
총 7시간 30분의 상담.

문제는 준비 시간이었다.

2024년, 나는 상담 전날 밤을 새웠다.

“1번 강도현... 뭐 말하지? 음... 교우관계가
좀 그렇고...” “5번 김민준... 화장실 자주 가
는 애였나? 아니 그건 다른 애였나...”

30명의 학생에 대해 기억을 더듬으며 메모
를 작성했다. 한 명당 30분. 총 15시간.

상담 당일, 나는 좀비 같은 얼굴로 학부모를 맞이했다.

1년 기록이 만든 5분 준비

2026년 4월, 다시 학부모 상담 주간.

이번엔 달랐다. 1년간 기록이 쌓여 있었다.

상담 전날, 옵시디언을 열었다.

검색창에 '강도현'. 1초.

- 3월 14일: 점심시간 류승민과 다툼
- 3월 20일: 개별 면담, 가정환경 파악
- 4월 15일: 체육 시간 안정적
- 5월 15일: 스승의 날 편지 "성격 고치고 싶어요"

1년간의 여정이 한눈에 보였다.

검색창에 '김민준'. 1초.

- 3월 7일: 화장실빌런 시작
- 3월 21일: 영어 시간 회피 패턴 발견

4월 5일: 개별 면담, 듣기 불안 파악
5월 9일: "오늘 안 무서웠어요!" 첫 성공

한 명당 5분. 30명 × 5분 = 2시간 30분.

15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줄었다.

학부모가 놀란 순간

상담 당일.

강도현 어머니가 오셨다.

"선생님, 도현이 학교에서 어때요?"

나는 옵시디언 노트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3월 초에는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3월 14일에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3월 20일에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도현이가 '집에서 아빠가 소리 지르면 몸이 굳어요'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다.

“그 후로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왜 싸웠어?’가 아니라 ‘그 순간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어?’라고 물었더니, 도현이가 마음을 열었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성격 고치고 싶어요’라는 편지를 췲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봐주셨군요. 저도 몰랐던 걸 선생님이 아시네요.”

기록이 없었다면?

“도현이 요즘 괜찮아요. 좀 그랬는데 나아졌어요.” 이 정도가 전부였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1년간의 성장 스토리를 전할 수 있었다.

16부. 수학여행 전날의 기적

전날 밤의 악몽

수학여행. 교사에게는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행사다.

2024년 수학여행 전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학생 명단 출력했나? 비상 연락망은? 멀미 약은? 우산은? 간식은? 버스 좌석 배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불안감.

결국 새벽 3시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와서 깨달았다. 멀미약을 안 챙겼다.
버스에서 3명이 토했다.

3년 치 체크리스트

2025년 수학여행이 끝난 후, 나는 옵시디
언에 기록했다.

수학여행 매뉴얼

┌ 체크리스트

D-7 (일주일 전)

- []
- []
- []
- []

D-1 (전날)

- []
- []
- []
- []

D-Day (당일 아침)

- []

- []
- []

2026년 수학여행 전날.

나는 옵시디언에서 [[수학여행]] 노트를 열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하나씩 체크했다.



학생 명단 최종 확인



비상 연락망 출력



멀미약 구입 ($30\text{명} \times 2 = 60\text{개}$)



버스 좌석 배치 (멀미 학생 앞자리)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

2026년 수학여행 당일 아침.

나는 7시에 일어났다. 충분히 잤다.

체크리스트는 이미 전날 다 완료했다. 오늘 아침에 할 일은 출석 체크와 멀미약 배포뿐.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멀미약을 나눠줬다. 미리 파악한 멀미 학생 5명은 앞자리에 앉혔다.

수학여행 내내 아무도 토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옆 반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하세요?
저는 매년 뭔가 빠뜨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3년 치 실수가 쌓여 있거든요. 그 실수들이 체크리스트가 됐어요.”

기록이 없었다면?

2026년에도 전날 밤 새벽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뭔가를 빠뜨렸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3년간의 실수가 완벽한 체크리스트가 되었다.

에필로그: 경력이 쌓이는 교사

교직 3년.

나는 깨달았다.

경력은 시간이 아니라 기록으로 쌓인다.

10년 차 교사도 기록이 없으면: - 매년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가르치지?” 고민 - 매년 체육대회 아이스크림 녹임 - 매년 학부모 상담 전날 밤샘 - 매년 수학여행 전날 불안

3년 차 교사도 기록이 있으면: - “피타고라스 정리는 보물찾기가 최고” 확신 - 체육대회 간식은 30분 전 수령 - 학부모 상담 준비 2시간 30분 - 수학여행 체크리스트 완비

나만의 백과사전 구축하기

영역	노트 예시	쌓이는 것
수업	[[피타고라스 정리]], [[이차방정식]]	연도별 수업 방식, 성공/실패 기록
행사	[[체육대회]], [[수학여행]]	체크리스트, “내년의 나에게”
상담	[[학부모 상담]], [[진로 상담]]	상담 기법, 성공 사례
업무	[[가정통신문]], [[기안문]]	상용구, 템플릿

마지막 한 마디

"오늘의 실수를 기록하면, 내년의 성공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이 망했다면, 기록하세요. 체육대회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면, 기록하세요. 수학여행에서 뭔가 빠뜨렸다면, 기록하세요.

그 기록들이 모이면, 당신만의 교사 백과사전이 됩니다.

기록하지 않은 교사는 매년 **1년** 차입니다.
기록하는 교사는 매년 경력이 쌓입니다.

오늘, 당신의 실수를 기록하세요. 그것이 내년의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기록이 만든 기적 4편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

부록

부록 1. 옵시디언 기록법 요약

1. 데일리 노트 (매일 3분)

매일 자동으로 생성되는 오늘 날짜의 기록
장입니다.

기본 양식:

2026-03-14 (목)

오늘 한 줄

- [[김민준]] 또 화장실. 목요일 2교시 때턴?
- [[강도현]] 점심시간 다툼. 개별 면담 필요.

ORID 회고

- 사실: 무슨 일이 있었나?
- 감정: 어떤 기분이 들었나?

- 해석: 왜 그랬을까?
- 계획: 그래서 어떻게 할까?

2. 링크 걸기 (핵심 습관)

대괄호 두 개로 감싸면 링크가 됩니다.

- 학생 이름: [[김민준]], [[강도현]]
- 행동 키워드: [[화장실빌런]], [[교우관계]]
- 환경 키워드: [[월요병]], [[비오는날]]

3. 백링크로 패턴 찾기

[[김민준]] 클릭 → 모든 관련 기록이 한 곳에 모임

→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만 화장실” 패턴 발견

4. 민원 대응 3단계

1. 감정 수용: “많이 걱정되셨겠습니다.”
2. 확인 요청: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3. 팩트 제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지도 했습니다.”

부록 2. 교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상황	기록해야 할 것
학생 지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했는지 (신체 접촉 여부 포함)
학부모 상담	날짜, 내용, 약속한 조치
학교폭력 인지	인지 날짜, 면담 내용, 조치 사항
수행평가	평가 기준, 점수, 피드백 내용
문제 행동	날짜, 상황, 지도 내용, 학생 반응
특이 사항	건강 문제, 가정 상황, 교우관계 변화

기록 예시

- ✖ 나쁜 기록: > “민재 주의”
- 좋은 기록: > “민재 어깨 톡톡 치며 ‘집
중해’ 말함. 이후 발표 잘 마무리.”

부록 3. 나만의 백과사전 구축하기

영역	노트 예시	쌓이는 것
수업	[[피타고라스 정리]], [[이차방정식]]	연도별 수업 방식, 성공/실패 기록
행사	[[체육대회]], [[수학여행]]	체크리스트, “내년의 나에게”
상담	[[학부모 상담]], [[진로 상담]]	상담 기법, 성공 사례
업무		상용구, 템플릿

영역	노트 예시	쌓이는 것
	[[가정통신문]], [[기안문]]	

수업 노트 템플릿

피타고라스 정리

❤️ 기본 정보

-

-

📚 17 수업 이력

2024년

-

-



-

2025년

-

-



-

행사 노트 템플릿

체육대회 매뉴얼

📆 2026년 기록

-

-

💬 내년의 나에게

1.

2.

부록 4. 신호 해독 체크리스트

문제 행동	질문해볼 것	가능한 원인
특정 요일 무기력	그 전날/주말에 무슨 일?	가정 갈등, 수면 부족
특정 음식 거부	그 음식과 연결된 기억?	트라우마, 감각 과민

문제 행동	질문해볼 것	가능한 원인
특정 시 간 돌변	그 전에 뭘 했 나?	혈당, 피로, 스트레스
특정 날 씨 지각	등교 수단은?	경제적 어려 움, 교통 문제
특정 장 소 회피	그 장소에서 무슨 일?	왕따, 트라우 마, 불안
특정 교 사 반항	그 교사와 무 슨 일?	과거 갈등, 권 위 트라우마

"문제 행동을 보면 '왜?'라고 묻지
말고, '언제?'라고 물어라."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
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
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기록이 만든 기적

교사의 **1년**, 옵시디언이 바꾼 교실 이야기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

문의: junki@example.com

ISBN: 000-00-0000-000-0